투명성의 시대 : 위키리크스가 불러온 혁명
(원저 : 미카 시프리, 옮김 : 이진원)

정 진 임*

올해 겨울, 제 목숨과 제 입맛만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재앙을 불러왔다. 생명 아닌 그저 고깃감으로만 길러져 나약하기 그지없는 소, 돼지들이 구제역 앞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온 나라가 구제역 비상에 걸리자 사람들은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땅에 묻었다. 살아있는 생명에 흙을 덮기도 했다. 그 후 구제역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못했다. 침출수가 하수도로 스며들고 곳곳이 악취로 진동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다.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도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개한 정보마저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제역 정보들을 모아 온라인상에서 매몰지 지도를 만들었다. 이 작업이 시작되자 수많은 언론이 주목했고, 결국 정부로부터 받은 제대로 된 자료로 구제역 매몰지 지도가 만들어졌다. (안타깝지만) 감추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태도,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이를 뒷받침 해주는 온라인서비스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www.opengirok.or.kr 간사

비슷한 시기, 전 세계는 '위키리크스'로 떠들썩했다. 이 곳은 애초에 미국의 이라크양민학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위키리크스는 또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미국의 외교 문서들을 공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게는 숨겨왔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문서들의 공개로 전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들 역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언론은 벌떼처럼 이 사안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역시 시민들이 구제역 매몰지 지도를 만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폐쇄적인 태도,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위키리크스의 경우에는 뛰어난 정보해킹 능력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위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된 위키리크스의 움직임은 비단 기밀의 유출과 폭로에서 그치지 않았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저지르는 부패와 권력남용 현실이 더 이상 쉬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터넷도구를 빌어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책 <투명성의 시대 : 위키리크스가 불러온 혁명>은 이러한 흐름의 시사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SNS, 위키, 오픈소스 등 web2.0 시대를 설명하며 위키리크스 현상이 단순한 이슈가 아니며 더 나아가 투명성을 향한 혁명의 단초가 됨을 말한다. 또한 폭로와 유출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의 확산, gov2.0 움직임등이 어떻게 투명성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이야기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파급력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일부 뛰어난 기술자들에 의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내부고발을 통해 정

보를 입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키리크스의 대표인 줄리언 어산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그가 또다른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문제 제기 역시 일어나고 있다. 실제 그와 함께 하던 위키리크스의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크는 어산지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오픈리크스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키리크스를 뛰어넘는 투명성의 시대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책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web2.0' 과 'gov2.0'에 주목해야 한다. web2.0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정보유통경로가 파괴되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의 흐름이 무너졌고, 집단의 지성이 발생했다. 『웹2.0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 web 2.0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블로그를 일컬어 "안이한 프로페셔널을 전복시키고, 복지부동의 기득권을 타파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료주의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하는 혁명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비단 블로그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생산과, 참여, 그리고 소통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web 2.0 기반의 전반적 흐름을 통칭하는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web2.0 정신을 계승한 정부의 모델이 이른바 gov2.0 이다. 간단히 말해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공개를 넘어서 자발적인 정보공유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 책에도 언급되었다시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건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확실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국민에게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모든 정부 기관들은 국민에게 정부가 알려주고 행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주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시의적절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취임첫날 투명성과 열린정부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후 본격적인 gov2.0을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미국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내역의 공개, 열린의회 등을 추진

했다. 이에 사람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으며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전의 정보유통 체계를 흔드는, 이른바 혁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역시 뚜렷했다. 저자는 투명성과 참여의 이슈는 있으나 정부의 행동방식에서는 크게 변화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떠들기는 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투명성의 시대가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열린정부가 혁신인지, 신기루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gov2.0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gov2.0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과천시의회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접근성을 확장하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나가려는 gov2.0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우리도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공개 이후의 상황에 추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는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와 소통 측면에서도 철벽같은 '산성'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열린정부를 향한 시도가 신기루가 되지 않도록 앞 선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명성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요구다. 그리고 그것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불씨가 당겨졌다. 하지만 위키리크스는 잠깐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퍼져나가는 들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위키리크스가 혁명을 불러왔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이 투명성의 시대를 여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보권력을 내놓기 꺼려하는 하는 정부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